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7월 24일 (제115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 컬럼

창의력(創意力)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과연 그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똑똑하고 정밀한 기계와 경쟁 중이다. AI나 로봇, 컴퓨터화된 기계들... 그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 분야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다. 열 사람, 아니 백 사람이 할 일을 로봇 하나가, 기계 한 대가 거뜬히, 그것도 실수 없이 해낸다. 그것들은 인권 보장이란 이유로 투쟁도 하지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 기계화나 로봇화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무인 점포, 무인 주유소, 인터넷뱅킹, 인터넷 쇼핑... 가까운 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전문적인 분야까지 접수할 것이고, 결국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들로 인해 실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잉여인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길은 없는 것인가? 헤밍웨이는 자신의 마지막 역작이었던 '노인과 바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맞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기계에 눌러 살기를 원치 않으실 거다. 그렇다면 방법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미 우리 속에 창의력을 탑재하셨다는 말이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영역이지만, 창고는 우리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고정관념, 고착된 사고를 깨야 가능하다.

나는 늘 우물 안 개구리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성도들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강조, 또 강조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물구나무서기 등이 절실함을 늘 주장한다. 그러면 길이 보인다. 우물이 넘쳐야 개구리가 우물 밖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사고의 틀이 깨질 때 남이 가지 않은 길이 보인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찾지 않은 것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기회는 잡는 자의 몫이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중지되었던 여름성경학교, 청소년연합수련회, 하계산상집회가 드디어 재개된다. 기회가 온 것이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 인생의 향방도 없이 떠도는 인생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삶의 터닝포인트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확실한 궤도수정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해마다 영적 보약 한 접을 달여 먹는 시간이었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라”(벧전4:7).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아는 악한 마귀와 그 추종 세력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다. 깨어있지 않다가는 그 포식자들에게 먹혀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과 질병, 고통 속에 허덕이다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

고 과감히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흰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는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자동차도, 배도, 비행기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성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또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기상 이변, 지진, 전쟁 등,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구촌 처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이 마지막 때를 맞은 성도들에게 강조한 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모이기를 폐하기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

고 말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

따라서 우리는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임을 명심하고,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대통령 났다, 사장 났다, 학자 났다,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과 알몸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

가 길입니다. 그 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생사화복(生死禍福)이 당신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망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그 선택의 기회가 온 것이다.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은 그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통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연합수련회, 8월 1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하계산상집회에 결단하고 참석하여 인생 성공의 확실한 기회, 나아가 영생의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란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The 24th UNITED YOUTH CAMP

중고등부 7월 25일(월)~27일(수), 청년대학부 7월 28일(목)~30일(토)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5~15)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지혜 중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을 오래 쓰고 싶으면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110V에 꽂으라고 했는데 ‘설마~’ 하며 그것을 무시하고 220V에 꽂으면 고장 납니다. 110V에 꽂으려면 110V에 꽂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장 없이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일종의 사용설명서인 셈입니다. 그 지침서를 잘 읽고 그대로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침서인 성경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28:1), 즉 ‘지침서대로 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하나님이 도우사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살고, 성공하고, 고장 나지 않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때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잠7:1~3)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잘되라고, 고장 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도 ‘파란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한 번만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길을 건널 때마다 가르치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각인이 됩니다. 그래야 빨간불이 켜지면 자동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

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이 되라고, 그래야 네 날, 네 자식의 삶이 장구케 된다고요(신6:2). 구체적으로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신6:3)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이 되면 어린이 성경캠프를 비롯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

성공의 길이요, 그것이 건 강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요, 그것이 소망의 길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 그것이 각인되고, 습관이 되어 절대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기에 매년 수련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다녀온다고 애가 달라지겠어?’ 하십니까? 가랑비에도 옷은 젖고, 콩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법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변화된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단언컨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위치와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할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명령으로 주셨고, 하고자 하면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도 주시고, 방법까지 자세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십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웃을 네 몸

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고(출20:16),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고(레19:13),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출20:17), 이웃이 주릴 때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마25:35),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눅6:37), 의리를 지키고(잠10:2).... 이러면 됩니다. 이게 어렵나요? 너무 당연한

명령 아닙니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찌 됩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인맥(人脈)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됩니다. 인맥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다리요, 날개인지라 금맥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맥 형성의 결과 아닙니까. 그는 보디발 아내의 보복성 위증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술관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의 꿈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어떻게 인맥을 쌓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세상의 유혹을 겪은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

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12:13).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수많은 처절을 들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허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대가가 따랐지요. 그가 늙어 깨닫고 후회와 탄식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데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전11:9~10).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혈기 왕성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2:1).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앞이 보여 넘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다

119:105).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눅11:28).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십 리를 가주고,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까지 내줘야 하고, 모처럼 쉬는 날인데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 하고,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대신 현금을 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백 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옥토인 내 안에 떨어지면 인생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119:10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이전보다 더욱!

한 달 전쯤 소천하신 정찬임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목사님, 내가 천국 가면 꼭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를 인도해 주어야 해요. 아들이 구원받아야 해요.” 하고 부탁하셨다.

권사님은 1남 4녀의 자녀를 두셨는데, 5남 매가 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한 달씩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처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이후에 큰딸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예배를 맡기려 했다가 엄마의 수첩을 보니 유언에 장례식은 인천 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가 인도해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례 예배에서 나는 그 자녀들에게 엄마의 유언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해야 함을 전했다. 아들이 믿기로 했고, 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딸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했다. 정 권사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구원과 행복한 삶, 그리고 가장 잘사는 법을 주고 가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채우지 아니한 물건, 파지 않은 우물 등을 얻을 것이다. 그런 복을 받을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

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더 행복하고 잘살겠다며 다른 신을 섬기다 징계를 받았다.

다윗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밋세바를 취했다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고통을 겪은 후 다윗은 깨닫고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험통한 삶을 살았다. 열왕기상 2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죽기 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면 너는 평생 험통하고, 또 네 자손이 여호와만 사랑하면 자자손손 왕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유언했다.

처음에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만 사랑했다. 그리고 복을 받아 금을 돌덩어리처럼 썼고, 왕국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다. 더 행복하고 더 잘살아 보려고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두고, 그 젊은 여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이 가져온 잡신을 섬기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고통이 이스라엘에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잘살려고 불교, 유교, 조상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 결과 가난, 고통, 저주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 이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잘사는 삶을 원하는가? 예수를 지금보다 더 잘 믿자. 이 땅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왕권을 누릴 것이다. **장영국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작곡가 헨델은 17세 때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다. 정식으로 음악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후인 21세에는 이미 건반 악기의 거장이 되었고, 40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재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헨델은 엄청난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더욱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건강이었다. 헨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 결과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해 크게 실망한 헨델은 마지막 고별 연주회를 하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숨어지냈다.

하지만 고별 연주회를 한 지 4개월 만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찰스 제닝스라는 친구가 찾아와 헨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토대로 한 가극 대본 하나를 전해주었다. 이미 폐인이 되다시피 한 헨델에게 위로도 할 겸 그가 작곡을 하면 작은 연주회라도 하나 열어줄 생각으로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대본을 읽은 헨델은 대본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영감이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 21일 동안 쉬지 않고 곡을 써

내려갔다. 그리고 이를 동안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을 했다. 드디어 24일 만에 260페이지의 대작품을 완성했다. 그는 이 작품을 ‘메시아’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헨델의 ‘메시아’는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한 번 이상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터닝포인트였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그에게는 터닝포인트였다.

우리 자신을 늘 속이는 거짓말이 있다. ‘인맥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태생이 그렇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미 다 해보았다’,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으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결코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헨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온다. 그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정금 전도사**

:: 책을 펴다 ::

문제를 친구 삼아라

철모를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모처럼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야, 춘석아, 너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는 것이다. 아이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의 낙상에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했지만, 나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도 몰라보겠다.” 맞장구로 우정을 확인했다. 친구란 이렇게 언제 만나도 반갑고 좋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문제를 친구 삼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지레 겁부터 먹는다. 그러나 문제를 친구 삼는 거다. 막역한 친구를 대하듯.

이렇게 당당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내가 문제 앞에 끄끽거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감당키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처음 목회를 할 때, 교회에 문제가 발

생하면 많이 놀라고 떨었었다. 언젠가 새벽에 다급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바지를 뒤집어 입고 뛰어나간 적이 있다. 그렇다고 그만큼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경륜이 쌓였다고 해야 할까, 당황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에게, ‘문제야, 잘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지.’라고 인사를 한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아닌가. 마음먹기에 따라 문제의 양상은 달라진다. 문제의 답이 하나라면 왜 굳이 겁내며 당황하며 다가가려 하는가? 당당하게 대하라. 문제를 친구 삼자. 그것도 코흘리개 적 그 친구처럼 말이다. 별거 아니다.

이초석 목사 저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중에서



:: 소망의 언덕 ::

수련회에 참석합시다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 식사 기도를 시키면 씩씩하게 하던 둘째 딸이 어떤 일인지 머뭇거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라고 해도 아이가 빠죽거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나중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돼? 늘 기도하고 식사를 했잖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더니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이가 식기도 하는 것을 금했나 하고 알아보더니 ‘아동복지법’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이나 신앙 행위(기도)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화만 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옮

길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린이집을 옮겨도 똑같은 법령이 적용되는 현 교육제도 안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은 딸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다음 세대이지만 그 이전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내에서 확실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는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 그리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승 목사

거절된 기도의 지연된 응답 2

거절된 기도에서 응답이 지연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랜 기간 절실한 심정으로 새벽마다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거절되고 지연되는 것으로 가슴 한편이 저미고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자녀를 위한 기도가 거절되고 지연되는 것일까요? 기도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먼저 김칫국부터 마신 것입니다.

나도 오랜 기간 새벽마다 그리고 틈틈이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거절되었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던 중 최근 지연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묵상하던 중 하나님이 딱한 표정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들은 내가 주었지만 너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그러기에 네 자녀들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는 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실상은 너를 위해 네 뜻대로, 네 고

집대로 기도하였다. 그러기에 거절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네 자녀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또 제게 물으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여호와와 손잡이 되어 네 자녀를 위해 왜 길을 열지 않으며, 네 최선은 다하지 않고 네 책임을 나 여호와에게 전가하며 그저 기도라는 명목으로 너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아!” 나는 그때 깨닫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에서 끌고 가거라. 내가 네 뒤에서 밀어주리라.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느니라! 네 자식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꾀박받고, 육먹는 것이 자녀를 네게 보낸 나 여호와를 위해 하는 것이니라!”

최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꼭 이렇게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으며 내가 간구한 것이 내 자식에게 최선의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기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즉시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인이 된 자녀의 기도와 간구에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경우 거절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며 오랜 시간 하나님 뜻을 우리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지 못하여 답답하시고 초조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지연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때론 꾀박으로, 때론 비난으로 힘들겠지만 자녀를 섬기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은혜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섬기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영광과 승리의 길입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텍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공중의 새

“아빠, 오늘은 무엇으로 끼니를 때울지, 이번 계절은 무슨 옷으로 날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만약 어느 날 초등학교생인 아들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을 한다면, 아버지로서 나는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탄식 섞인 말씀으로 나무라셨다. 공중의 새는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염려 속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라는 뜻이지,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생각하며 세상의 필요를 뉘 놓고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다. 공중의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날아다니다 발견하면 예리한 눈으로 한참을 인내하며 낚아챌 기회를 기다린다. 기회가 포착되면 전력을 다해 날아가 먹이를 획득한다. 오직 새장의 새만이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기다린다. 들의 풀은 한낮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때론 모진 비바람도 버텨낸다. 그러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땅으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린다. 오직 화분의 꽃만이 평화롭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에 염려는 내일로 미루고, 먼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우리 할 일에 집중하며,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끝까지 온 힘으로 버티는 것이 인생의 정도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당신에게도 말씀하신다. “아빠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걱정을 하니?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마6:34).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동행하는 삶

어떤 남자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속력을 내다가 그만 교통경찰에게 걸렸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목사님’이었다. “아실만한 분들이,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납니다.” 그러자 뒤에 탔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경찰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은 정원 초과 벌점 10점과 함께 스티커를 붙였다. 과연 하나님은 그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동행의 삶을 살고 있을까?

성경에 ‘예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예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성경에는 예녹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승천을 앞둔 예녹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볼 수 있다. “믿음으로 예녹은 죽음을 보

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예녹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기쁘게 동행하려면 서로 일치하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동행을 했다는 것이다.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방향’이 같아야 한다. 목적지가 서로 다르면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같아야 한다. 비록 목적지가 같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비행기를,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느리게 가는 것 모두 동행이라 할 수 없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서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서로에게 맞추며 한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할 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췄다. 우리의 인생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심이 서실 때 서야 하고 주님이 가실 때 가야 평생 주님과 보조를 같이하며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동행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동행의 관점에서 볼 때 예녹의 삶은 완전했다. 예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자녀를 양육했다. 동행하면서 아침에 집을 나섰고 동행하면서 집에 돌아왔다. 이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 아닐까 한다.

오늘이 어제 같고 한 주가 지난주 같은 날이 반복된다. 날마다 같은 일을 하고, 자질구레한 일로 쫓기다 보면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다. 솔로몬은 ‘전에 있던 일이 다시 생기고 전에 하던 일을 또 하는 것이며,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일이 없다’라고 했다. 수없이 반복되는 평범한 날이지만 우리 삶의 내일은 ‘염려’가 아닌 ‘기대’를 가지고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